

23.12.19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모두 발언

2023. 12. 19. (화) 10:0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제5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석해주신 각 부처 실·국장님들과
정책금융기관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14일
국가 산업정책과 정책금융간 유기적 연결을 통해
적재적소에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성과는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해 부처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자금을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우선, 부처간 머리를 맞대
5대 중점분야 및 33개 세부분야를 선정하고,
각 부처 수요를 반영해
매년 정책자금 공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자금 집행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분기 개최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경제·산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각 부처가 수시로 대응이 필요한 사항도
적시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생태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의견을 반영해
6월에 개최된 제3차 협의회에서
3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펀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투자를 받기 어려운 분야인
딥테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과기부 의견을 반영해
9월에 개최된 제4차 협의회에서
성장사다리펀드 개편을 통한
딥테크 투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신 각 부처와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준 정책금융기관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II. 23년도 정책금융 공급 실적

금년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당초 계획인 91조원을 초과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고금리 지속 등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자금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펀드와 민관합동 펀드들도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혁신성장펀드 금년중 총 4.0조원 조성 예정(당초 목표 3조원 조성) 등

III. 24년도 정책금융 공급 방향

'24년도에도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를 전망하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자금여건 어려움도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 미래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고금리 등 경기여건 어려움에 맞서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함과 동시에,
주력산업과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이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금년 대비 정책금융공급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금융을 ‘23년 205조원 대비
3.4% 증가한 212조원을 공급하고,

특히,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해서는
‘23년 계획이었던 91조원 대비
11.5% 증가한 102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1)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기업이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는
압도적인 기술격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초격차 분야”에
‘23년 대비 12.8% 증가한 17.6조원을 공급하겠습니다.

2) 향후 우리나라 경제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혁신기업이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생태계 조성도 필요합니다.

중견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거나,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과
지방의 우수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니콘 기업 육성 분야”에
’23년 대비 39.5% 증가한 12.6조원을 공급하겠습니다.

3) 3高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분야”에도
’23년도 대비 8.9% 증가한 28.7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IV. 맺음말

글로벌 산업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등에 맞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금융과 산업부처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들의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